

## 예비 창업자의 정서지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개인창의성 매개 효과

최주철  
경희대학교 미래혁신원 부교수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Effect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Emotional Intelligence on Entrepreneurship: Mediating Effect of Personal Creativity

Ju-Choel Choi<sup>a</sup>, Hag-Min Kim<sup>b</sup>

<sup>a</sup>Department of Future Innovation, Kyung Hee University, South Korea

<sup>b</sup>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 Trade, Kyung Hee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May 2020, Revised 15 June 2020, Accepted 25 June 2020*

####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entrepreneurship mediated by personal creativity, and an effective.

**Design/methodology/approach** -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approximately 141 student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AMOS statistical package.

**Findings** - First, emotional intellig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personal creativity. Second, Personal creativity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ntrepreneurship. Specifically, personal creativ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expression intelligence and entrepreneurship, but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the facilitation of cognitive intelligence. Lastly, prospective entrepreneur's emotional intelligence is see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creativity plays a role in mediating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entrepreneurship. Therefore, supplementary measures are needed to place more importance on emotional intelligenc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lated to starting a business, which had not been appropriately addressed until now.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policies are needed to develop entrepreneurship skills in those who are interested in starting a business, and that follow-up studies on entrepreneurship are needed.

**Keywords:** Entrepreneurship, Emotional Intelligence, Personal Creativity, Start-up

**JEL Classifications:** L20, M13, M14

## I. 서론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국과 중국과의 국제무역 분쟁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대한 주요 원자재 수출규제를 비롯한 정치·외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

<sup>a</sup> First Author, E-mail: choijc@khu.ac.kr

<sup>b</sup> Corresponding Author, E-mail: edoctor@khu.ac.kr

© 2020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국경제의 특성상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필요한 실정이다(Park Jun-Gi and Jae-Sub Shim, 2019). 그러나 수출을 주도하고 전통적으로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던 대기업들의 고용흡수력이 감소와 중국 등 후발 국가와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산업의 증가로 인하여 고용과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따라 전 산업 분야에서 혁명적인 파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사람이 하던 단순한 작업은 빠르게 무인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과 기계 간의 일자리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취업과 진로 선택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단기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취업 희망자에게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학생들의 취업문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학생의 취업난으로 인한 불안감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Jang, Jun-Ho and Chun-Hua Jin, 2019). 따라서 미래를 위한 진로 탐색과 준비 행동에 있어서 전통적인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창업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도 계속 높아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핵심적 대책으로 창업에 주목하고 있다. 창업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통한 건전한 노동시장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유지하고,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Lee Sang-Jik and Jae-Choon Park, 2015). 많은 국가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가정신을 높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창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률 저하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성장과 고용 확대가 문제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창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고용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창업을 통한 양질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정과제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지원, 사업화 지원 등 창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청년실업률은 2016년 9.8%, 2017년 9.8%, 2018년 9.5%, 2019년 8.9%로 매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성장 잠재력 저하 등 여러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청년층 고용문제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왜곡, 청년의 구직 자신감 결여에 따른 구직 포기 현상, 사회적 만족감 하락 등 전반적인 사회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창업이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다(Jang Kwang-Hee, 2019).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취업 등을 포함한 선진국형 조기진로지도와 청년창업 활성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0).

창업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창업자, 자본, 아이템을 결합하여 기업으로서 사업을 시작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Gil Dae-Ho and Hwa-young Jeong, 2019).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기업가정신은 혁명의 원동력으로 인식되면서 물적인 측면 이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지식 서비스 혁명의 시대에 그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과 기술의 진보로 무한 경쟁의 시대가 열리고 기업에서도 생존을 위해 창의성,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능력, 융복합성, 도전정신과 같은 역량이 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Baek Yu-Mi, 2018). 따라서 기업가정신의 개념으로 다른 조직 구성원들의 감성 표현은 기업가의 인식, 감정, 행동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상하였다(Biniari, 2012).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그동안 창업 관련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정서 지능을 정서표현지능과 사고촉진 지능으로 분류하고 이 두 가지 지능이 기업가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이에 개인 창의성의 매개역할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 지능과 정서의 이론적 배경

### 1. 정서표현지능

정서지능은 기업가정신과의 관계는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정서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능과 정서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세기

이후부터, 심리학자들은 정신이 인지, 정서, 동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Mayer and Salvey, 1990). 지능은 정신기능의 인지적인 측면에서 학습, 기억, 추론 판단, 적용을 포함하는 인지적인 영역의 효율적인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서 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감지하는 능력과 각각의 정서를 구별하는 능력, 정보를 통하여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를 위해 정서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서 이러한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하였다(Mayer and Geher, 1996). 정서의 인식과 표현 능력은 정서 지능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서를 빠르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더 적절하게 반응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Mayer and Salovey, 1997). 이 능력은 유기체 내부에서 정서의 정보 처리를 진행하며,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위해 필요로 한다. 정서의 인식과 표현 능력은 대상에 따라 자아와 타인으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대상 안에서 언어적인 내용과 비언어적인 내용으로 구분된다.

Goleman (2005)은 정서 지능에 대해 좌절의 상황에서도 개인을 동기화시키고 자신을 지켜내며, 충동을 통제하고 만족의 지연이 가능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하고 희망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즉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충동을 억제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을 동기화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감정이입을 통해 대인관계를 다루는 능력 등의 5단계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 학습상황, 대인관계, 자신의 활동영역에서 자신을 효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으로 끌어내는 고차원적 능력으로 표현하였다. 자신의 정서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언어적 방식과 비언어적 방식으로 구분된다. 언어적 방식은 자신의 정서를 언어로 명명하고 변별하며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언어적 방식은 자신의 정서를 표정, 몸짓, 말투의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무정서증 이라고 한다(Sifneos, 1972). 따라서 정서 지능은 자신의 정서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재는 척도가 된다 (Taylor et al, 1985). 타인 정서의 인지와 표현 방식은 비언어적 방식과 감정이입 방식이 있다. 비언어적 방식은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비언어적 내용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이입 방식은 타인의 정서를 자신의 내부로 이해하고 재경험하는 능력이다. 감정이입은 정서 표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Ekman, Freisen and Ancoli, 1980). 둘째 요인 정서의 조절로 이것은 자신 정서의 조절능력과 타인 정서의 조절능력으로 구성된다. 자신 정서의 조절능력은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로 바꾸는 능력이다. 이것은 기분의 추상적 경험으로서 자신의 정서를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타인 정서의 조절은 타인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혹은 적응적 방향으로 조정하는 능력이다. 셋째 요인 정서의 활용이다. 이것은 연역적 사고, 귀납적 사고, 추론, 문제해결, 창의적 해결을 위해 정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하위요인은 융통성 있는 계획 정립, 창의적 사고, 주의 집중, 동기화로 구성된다. 융통성 있는 계획은 기분의 교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분의 교체는 긍정적인 사건을 유도하여 다양한 미래 계획들을 세우고 가능한 결과를 예언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Mayer and Bremer, 1985). 주의 집중은 여러 복잡한 문제나 기분에 있을 때 정서를 활용해서 우선적인 과제에 집중하게 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강력한 정서는 현재 문제에서 벗어나서 문제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새로운 문제로 전환 시킨다. 마지막으로 동기화는 좋은 기분을 활용하여 과제에 자신감을 부여하는 능력이다. 이처럼 정서지능은 기업가 정신에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동안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 2. 사고촉진지능

사고촉진지능은 정서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정서 지능의 하위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 (Mayer and Salover, 1993). 긍정적 정서는 창의적 사고의 근간이 되는 확산적 사고를 촉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Fredrickson, 1998/2001).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는 하나의 정답을 갖는 문제에서 정답 또는 오답을 판별하는 능력이고,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는 수많은 정답이 존재 가능한 문제에서 다양한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하였다(Dacey, 1989). de Bono (1971)은 수직적 사고(vertical

thinking)와 측면적 사고(lateral thinking)의 개념으로 이러한 능력을 설명했다. 즉 아이디어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인 사고를 수직적 사고라 하였으며, 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다양한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측면적 사고라 하였다. 사고발달은 개인의 외부에서 오는 사회적 영향이 개인의 내부로 전환되는 과정을 연구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또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일이나 사고가 기본에 따라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Vygotsky, 1980).

최근의 이러한 지능 개념은 개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정신의 개념으로 사회적인 능력, 예술적인 재능, 정서의 이해 및 표현 능력, 성격, 동기, 도덕성 등을 확장하여 포함함으로써 과거보다는 현실 세계 속에서 밀접하게 관련되는 수행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Ha Dae-Hyun, 1996). 기업은 창업단계와 창업이후에 수많은 문제에 직면 하며 해결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사고 촉진과 관련된 문제해결능력과 기업가정신은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Ahn Tae-uk and Tae-won Kang, 2017). 이처럼 사고촉진과 관련된 지능은 문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하였다(Kim Ki-Sup and Kyung-Hun Cho, 2017).

### 3.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는 용어는 18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리샤르 드 칸띠용(Richard de Cantillon)이 당시 기업가들이 불확실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여 불확실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감수를 강조하는 과정으로 경제적인 개념으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Palmer, 1971). 기업가정신의 개념은 오랜 기간 진화해왔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의는 상당히 다양해졌다(Kuratko and Audretsch, 2013). 한국에서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고(Han, Yoo-Jin, 2016), 이런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의지나 열정으로부터 기업가의 능력이나 산업에서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Kim In-Sue, Kyeong-Sik Yoo and Yoon-Dong Kim, 2017). Stevenson and Jarillo (1990)는 통제 가능한 자원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Shane and Venkataraman (2000)은 기업가정신을 미래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기회를 발견하고, 평가되며, 이용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과정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의 본질을 기회추구의 과정에서 찾고 있다. Stevenson and Jarillo (1990)는 기업가정신을 정의하면서 기회 포착과 기회추구를 강조하였다. 시장 기회에 직면한 기업이 혁신적이며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려는 성향으로 보고 자율성(autonomy), 경쟁적 공격성(competitive aggressiveness)으로 추가하여 분류하였다(Lumpkin and Dess, 1996). 또한 Miller (1983)는 기업가정신의 속성으로 혁신성, 위험 감수성 및 진취성을 강조하였고, Morris and Lewis (1995)는 혁신성(innovativeness), 진취성(proactiveness) 및 위험 감수성(risk-taking)의 세 가지 속성을 기업가적 태도와 행동의 근간으로 보았다. 여기서 첫째 진취성(Proactiveness)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와 필요성이나 변화를 예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결과로 수익성과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Lumpkin and Dess, 1996). 둘째, 혁신성(Innovativeness)은 Shumpeter (1934)의 초기 연구에서는 역동적으로 경제의 진화를 추진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조합의 경쟁력 있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험 감수성(Risk-taking)은 위험하고 매우 불확실한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과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성과 이득의 보상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 감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Jancenelle, Storrud-Barnes and Javalgi, 2017). 기업가정신은 최근 새로운 기업을 창조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Baek Yu-Mi, 2018).

#### 4. 개인창의성

창의성은 다양한 개념적 정의 속에서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새롭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창의성 주체에 대한 특성과 결과물, 과정, 평가의 주체 등이 고려된 다원적 접근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Runco and Pritzer, 1999). 창의성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사이에서 누적되고 발달한 지식과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다(Sternberg and Lubart, 1991). Guilford (1967)는 창의성에 관련된 하위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주어진 문제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 사고의 유창성(Fuency of Thinking), 사고의 융통성(Flexibility of Thinking), 사고의 독창성(Originality), 사고의 정교성(Elaboration)등을 창의적인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지적 특성으로 확인하였다. 첫째, 문제에 대한 민감성은 기존의 체계 내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능력이다. 둘째, 사고의 유창성은 사고의 양적인 측면으로 풍부함과 관련된 것이다. 셋째, 사고의 융통성은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해내는 것이다. 넷째, 독창성은 통계적으로 주요 반응들이 나타나는 빈도수가 낮은 반응을 산출하는 능력이다. 다섯째, 정교성은 문제를 세분화하여 전개하거나 문제에 내포된 의미를 더욱 명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나은 검증과 분석을 계획 하는 능력이다. 이와 같은 요소는 발산적 사고와 수렴 사고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창의성의 시작은 유창성이며, 창의적 사고의 목적은 독창적이고 질적으로도 뛰어난 사고를 산출하는 데 있다(Guilford, 1950/1967). Amabile (1983)은 분야와 관련된 기술, 창의성과 관련된 기술, 과업 동기를 창의성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 요인으로 보았다. 분야와 관련된 기술은 해당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요인은 해당 분야의 지식, 재능 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창의성과 관련된 기술은 인지적 유형을 뜻한다. 과업 동기란 할당된 과업을 수행하도록 결정하게 만드는데 동기와 관련된 변인들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다른 수준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게 만든다. 특히, 창의성은 크게 인지적 관점과 비인지적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다(Kim Sang-Pyo, Chung-Gyu Byun and Hwan-Ho Ha, 2014). 먼저, 인지적 관점(cognitive style)은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창출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기존의 인지구조에 새롭게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통합하여 환경에 대처하는 개인의 내적인 정보 처리방법이다. 비인지적 관점은 개인적 성향으로 독특하고 두드러진 생각과 행위를 결정하는 일관된 동기나 행동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Urban (2013)은 인지적 요소와 개인 성향 요소로 창의성을 구분하였고, 인지적 요인에는 일반지식과 사고력, 발산적 사고력, 영역지식과 기능 등을 포함하며 개인적 성향 요소는 동기유발, 집중력, 과제 집착력, 개방성과 모호함에 대한 인내 등을 포함 하였다.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창의적 사고와 정서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Ayman-Nolley, 1992). 특히 확산적 사고와 관련된 인지능력인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 논리성 등은 문제발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Lee Hyun-Kyoung and Il-Han Lee, 2016). 또한, 지적인 특성뿐 아니라 적극적이며, 동기부여가 충실히 잘된 정서적 특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다(Dillon, 1982). 따라서 개인 창의성 요인 중에서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논리성과 같은 사고능력요인과 개방성, 도전성의 성향요인을 창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Amabile (1996)은 개인의 창의적 행동은 전문성(expertise), 창의관련작용(creativity relevant process), 과업동기(task motivation)의 3가지 구성요소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다른 실증연구(Conti, Coon and Amabile, 1996; Ruscio, Whitney and Amabile, 1998)에서도 타당성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창의성을 전문성, 창의 사고, 동기부여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전문성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을 뜻하며, 창의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을 이룬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타날 수 없으므로, 전문성은 개인 창의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Kim Hye-Sook and In-Soo Choe, 2002; Amabile, 1996; Feldhusen, 1995). 이러한 전문성은 창의성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구축 하는데 이용된다. 또한, 전문성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창의 사고는 문제해결을 위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기존 문제나 아이디어를 역으로 사고하는 성격을 포괄하는 인지능력과 성격적 자질을 의미한다(Amabile, 1996). 창의 사고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과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하는 과정에 영향 미치므로 창의 사고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동기부여란 주어진 과업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Amabile et al., 1994). 과업 동기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외재적 동기는 외적이면서 보상, 처벌, 사회적 압력 등으로 유발되는 환경적인 요인이며 활동 그 자체에는 크게 흥미가 낮으며 보상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내재적 동기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는 실험정신, 자발성과 유연성을 고취시키며, 인내력과 끈기로 창의적 노력을 시도하고 지속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 창의성에서 중요한 요인이다(Amabile, 1996). 즉,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해답을 찾는 과정을 지속적이고 원활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Schumpeter (1934)는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학자로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혁신가를 기업가로 보았다.

### III. 연구방법론

####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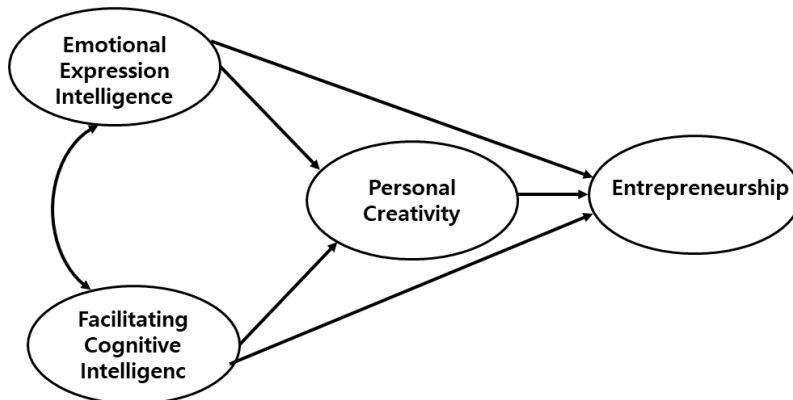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선행연구의 고찰과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정서표현지능과 사고촉진지능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 창의성은 각 경로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하였으며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 2. 가설 설정

##### 1) 정서 지능이 개인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 지능과 개인 창의성에 대한 통합적으로 연구는 많지 않다. 정서 지능이 적응성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를 살펴보면 적응 행동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인 부분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

Fig. 1. Growth and Decline Curve of Entrepreneurship in Korea



로 나타나고 있다(Pulakos et al, 2000). 직무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보이는 개인에게 보다 능동적인 학습의 관점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잠재적인 역량을 자극하면 비일상 성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이다(Han Tae-Young and Yun-Suk Cha, 2011). Lee Ju-il and Kyung-Hwan Min (1995)은 정서가 개인의 창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불확실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Lee Jung-Mo (2002)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에서는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며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잘하는 성향이 있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서는 분석적이고 인과적인 추론 과제를 잘하며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창의적 사고는 정서를 활용해서 기억을 구조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기분은 정보의 범주화를 만들고(Isen and Daubman, 1984) 정보의 범주화는 창조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Isen, Daubman and Nowicki, 1987). 따라서 정서 지능이 개인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하였고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정서 지능은 개인 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정서표현지능은 개인 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사고촉진지능은 개인 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정서 지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정서 지능 관점에서 긍정적 정서는 개인의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불확실성에 관련된 대처능력을 높여준다고 하였다(Lee Ju-il and Kyung-Hwan Min, 1995). 그리고 업무성과와 정서 지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긍정적 정서에서 더 높은 업무성과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부정적 정서 또한 수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aw and Barasde, 1993). Pickle and Abrahamson (1990)은 책임감, 열정, 인내력 및 달성하려는 의지 등으로 구성된 추진력, 사고력, 지능지수, 분석력을 포함하는 정서 능력, 사고성, 대인관계 기술, 정서적 안정, 감정이입 남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인간관계 능력, 언어나 문서로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소통능력 등을 기업가정신의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H2** 정서 지능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정서표현지능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사고촉진지능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개인 창의성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Halim and Mat (2010)은 기업가적 창의성과 개인적 창의성, 사업의 창의성, 제품차별화, 제품개발, 경쟁우위 등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서는 각각의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Whiting (1988)은 독립심과 호기심, 자기 확신, 성취 열망, 과업 몰입등이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지닌 5가지 특성이며, 열의, 자기 확신과 인내심, 계산된 위험추구, 성취 욕구 등은 상대적으로 기업가정신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보았다. 창의적인 특성과 기업가적인 특성의 의미는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기업가정신이 기존의 시장의 질서와 균형을 파괴하는 행동에서 나타난다고 보면, 창의적 활동가들의 행위와 기업가들의 시장 균형 파괴 행위는 유사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기업을 창조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동기와 강한 몰입이 없으면, 기업가적 비전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과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Kim Jong-Kwan, 2017). Amabile (1997)의 연구에서도 기업가정신과 개인의 창의성이 관련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가

설을 설정하였다.

**H3** 개인 창의성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개인 창의성의 매개효과

창의적인 사람의 긍정적인 성격적 특성으로 높은 에너지, 모호성에 대한 개방성, 복잡하고 새로운 현상에 대한 이끌림, 열린마음, 불리한 조건에 맞서는 끈기 등을 제시하였으며 개인 창의성의 특성에는 기업가의 성격적 특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Feist, 1999). 창의성이 결국 사람으로부터 기인하기에 창의적인 조직과 기업을 위한 중요성은 분명하다. 사람은 이성적이며, 감성적 존재이고, 이성과 감성으로 문화를 학습하고 창조하는 창의적 존재이다. 이처럼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의 관계에 대해 학문적인 부분과 실무적 관심이 함께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고 논쟁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지만 기존 연구를 정리해보면, 창의성과 기업가정신 사이에는 일련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고 하였다(Whiting 1988; Lee, Florida and Acs, 2004).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개인 창의성은 정서 지능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1** 개인 창의성은 정서표현지능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2** 개인 창의성은 사고촉진지능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도구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Measurement Item	Previous Research
Emotional Expression Intelligence	Emotional Expression Intelligence	Ability to Recognize and Express One's Emotions	① When You Get Angry, Think About The Cause First	Mayer & Salvey (1990); Goleman. (2005); Taylor et al. (1985); Dacey (1989).
			② I Think That Feelings Or Moods Are Sometimes Contradictory	
③ Love Feelings Distinguish Your Favorite Emotion Differences				
④ Understand The Meaning Of Love Means				
⑤ Understanding Complex And Subtle Emotions and Emotional States				
⑥ Romance Novels are Better than Mystery Novels				
⑦ Understand that The Same Thing has Different Emotions According to Generational Differences				
⑧ Appropriate Names can be Given for Emotional States				
⑨ More Than 20 Kinds of Emotions can be Listed				
⑩ I Know there are Many Kinds of Emotions				
Facilitating Cognitive Intelligence	Facilitating Cognitive Intelligence	Systematic and Learned Ability to Influence Thinking	① I Think that My Mistake can Offend Others	
			② No Matter How Scared I Think I can Overcome It	
			③ Knows How to Calm Anger	
			④ I Can Grasp My Feelings and Do Things in Order	
			⑤ Can Handle Those Feelings When Angry	
			⑥ Turn a Depressed Mood Into a Positive Mood	
			⑦ Emotion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⑧ After Work, You can Overcome Your Bad Mood	
			⑨ Success or Failure of Work Depends on the Mindset	
			⑩ Even If You don't Want to Do It, Change Your Mind	



Personal Creativity	Expertise	Ability to be Acquired Through Knowledge and Experience in a Specific Area	① Strive to Build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② There is a lot of Intellectual Curiosity About Expertise ③ A lot of Knowledge and Experience in My Field ④ I am Recognized for My Professionalism	Amabile, (1996); Kim Hye-Sook & Choe In-Soo (2002)
	Creative Thinking	Ability to Think Creatively to Solve Problems	① Good at Expressing Unique Expressions ② Defect Different Things to Make New Things Well ③ Tend To Think a lot of Flexible Ideas ④ A lot of Original Ideas	
	Motivation	Making the Task Work Hard	① Satisfied with My Job ② Job is a Pleasure ③ Eagerly Performing My Job ④ I Want to Continue My Job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New Ideas that can Lead to New Products, Services or Technological Processes	① Inquisitive about New Products and Technologies ② Pursuing New Changes ③ Trying To Find New Ideas ④ Actively Embrace Original Ideas ⑤ Developing New Items With Excellent Observation	Mille (1983); Morris & Lewis (1995)
	Proactiveness	Future-Oriented Perspective to Actively Participate in Opportunity Expansion	① Learn Anything With Just Your Heart ② Solve Difficult Things without Giving Up ③ Strive To Plan And Achieve What You Want ④ Believe that You can Solve Problems with Your Own Strength ⑤ Success as a Businessman	
	Risk-Taking	A Tendency to Participate In Very Uncertain Projects and Activities	① No Fear of New Challenges and Results ② Pursuing New Things Despite High Risks ③ Do Not Hesitate to Capture Potential Opportunities ④ Challenge Despite Uncertainty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측정 도구들을 이용하여 연구목적에 부합 하도록 수정하여 재구성하였으며, 다음 <Table 1>과 같다. 설문지는 정서 지능, 개인 창의성, 기업가정신 등 총 4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서 지능은 ‘화가 나면 원인을 먼저 생각함’ 등 정서표현지능 10개 문항, ‘나의 실수로 타인을 불쾌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등 사고촉진지능 10개 문항 등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제품 및 기술에 호기심이 많음’ 등 혁신성 5개 문항,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음’ 등 진취성 5개 문항, ‘새로운 도전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음’ 등 위험 감수성 4개 문항 등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개인 창의성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함’ 등 전문성 4개 문항, ‘독특한 표현을 잘하는 편임’ 등 창의사고 4개 문항, ‘나의 직무에 만족함’ 등 동기부여 4개 문항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 항목은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하였다.

####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국내 창업 교육을 수강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145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이나 결측치가 있는 4부를 제외하고 총 141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과 가설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기술통계분석으로 연구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의 신뢰성을 검증을 위해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를 활용하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중으로 하여 연구변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탐색적요인분석(EFA)은 주성분 분석 그리

고 직교 3회전 방법(Varimax Method)을 이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CFA)은 요인부하량, 개념 신뢰도(C.R) 값, 평균분산추출지수(AVE)로 집중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절대적합지수 및 증분적합지수를 도출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모형(SEM)을 구축 후 AMOS 통계패키지를 통해 4개의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AMO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자유 모형과 제약모형을 비교하고 판단의 기준으로 하였다. 유의 수준  $p < 0.05$ 에서 연구가설의 채택과 기각을 판단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Division	Article	Frequency(N=141)	Percent	Cumulative Percentage
Nationality	Korea	122	86.5	86.5
	China	17	12.1	12.1
	Etc	2	1.4	1.4
Gender	Male	72	51.1	51.1
	Female	69	48.9	48.9
Age	20-29	74	52.5	52.5
	30-39	34	24.1	24.1
	40-49	23	16.3	16.3
	60 or More	10	7.1	7.1
Major	Business and Economics	94	66.7	66.7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7	19.1	19.1
	Engineering	4	2.8	2.8
	Art and Physical Education	9	6.4	6.4
	Etc	7	5.0	5.0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	Yes	45	31.9	31.9
	No	96	68.1	68.1

본 연구에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먼저 한국 학생이 122명(89.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중국 유학생은 17명(12.1%), 기타 2명(1.4%)이었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72명(51.1%), 여학생 69명(48.9%)로 남학생이 조금 많았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가 74명(52.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30대는 34명(24.1%), 40대는 23명(16.3%), 50대 이상은 10명(7.1%)이었다. 전공학과를 살펴보면 상경계열이 94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사회계열 27명(19.1%), 예체능계열이 9명(6.4%), 공학 계열이 4명(2.8%), 기타 7명(5.0%)이었다. 마지막으로 창업교육을 경험한 학생은 45명(31.9%)으로 경험하지 못한 학생 수 96명(68.1%)보다 적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는 <Table 3>과 같다. 정서표현지능의 평균값이 3.6472로 가장 높으며, 개인 창의성의 평균값이 3.4178로 가장 낮았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Division	Minimum	Maximum	Mean	Std
Emotional Expression Intelligence	1.50	5.00	3.6472	.58177
Facilitating Cognitive Intelligence	1.00	4.75	3.4468	.61659
Personal Creativity	2.08	5.00	3.4178	.56712
Entrepreneurship	1.25	4.92	3.5165	.56442

## 2.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 1)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성 검증

본 논문의 각 연구변수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서 지능 20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4>와 같이 각각 12개 문항이 탈락하고 정서표현지능과 사고추진지능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53.074%이며 Cronbach's  $\alpha$ 에 의한 신뢰성 지수는 각각 0.698과 0.686으로서 양호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KMO는 0.5 이상, Bartlett 구형성 검증 값은  $p < 0.001$  이하로 나타나 요인분석 적합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 창의성 12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위 <Table 5>와 같이 탈락한 문항 없이 동기부여, 창의사고, 전문성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7.890%이며 Cronbach's  $\alpha$ 에 의한 신뢰성 지수는 각각 0.881, 0.834, 0.769로서 모두 양호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증에서 KMO는 모두 0.5 이상, Bartlett 구형성 검증값도  $p < 0.001$  이하로 나타났으며 표집 및 요인분석의 적합성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가정신 14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6>과 같이 혁신성 문항 5와 진취성 문항 5가 탈락하였으며 3개의 하위요인인 혁신성, 위험 감수성, 진취성이 추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6.618%이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Results of Facilitating Cognitive Intelligence**

Observed Variable	Questionnaire Item	Emotional Expression Intelligence	Facilitating Cognitive Intelligence
Facilitating Cognitive Intelligence	⑥ Turn a Depressed Mood Into a Positive Mood	.789	.110
	⑦ Emotion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786	.195
	② Think that Feelings or Moods are Sometimes Contradictory	.683	.113
Emotional Expression Intelligence	④ Understand The Meaning Of Love Means	.518	.302
	⑤ Understanding Complex And Subtle Emotions and Emotional States	.061	.811
	④ Understand The Meaning Of Love Means	.111	.779
	③ Love Feelings Distinguish Your Favorite Emotion Differences	.290	.718
	⑩ I Know there are Many Kinds of Emotions	.235	.427
	Eigen Value	2.131	2.115
	% of Variance	26.635	26.439
	Cumulative %	26.635	53.074
	Cronbach's $\alpha$	.698	.686
KMO / Bartlett Sphericity Test		.786/0.000( $\chi^2=239.840, df=28$ )	

**Table 5.**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Results of Personal Creativity

Observed Variable	Questionnaire Item	Motivation	Creative Thinking	Expertise
Motivation	② Job is a Pleasure	.881	.206	.122
	① Satisfied with My Job	.862	.149	.134
	④ I Want to Continue My Job	.818	.116	.146
	③ Eagerly Performing My Job	.705	.221	.317
Creative Thinking	④ A lot of Original Ideas	.052	.810	.156
	① Defect Different Things to Make New Things Well	.117	.794	.073
	③ Tend To Think a lot of Flexible Ideas	.359	.774	.202
	② Defect Different Things to Make New Things Well	.239	.718	.255
Expertise	① Strive to Build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160	.118	.827
	② There is a lot of Intellectual Curiosity About Expertise	.056	.123	.753
	③ A lot of Knowledge and Experience in My Field	.184	.190	.722
	④ I am Recognized for My Professionalism	.390	.220	.584
Eigen Value		3.102	2.642	2.403
% of Variance		25.853	22.014	20.023
Cumulative %		25.853	47.867	67.890
Cronbach's $\alpha$		.881	.834	.769
KMO / Bartlett Bartlett Sphericity Test		.851/0.000( $\chi^2=812.615$ , df=66)		

며 신뢰성 지수는 0.867, 0.794, 0.786으로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에서 KMO는 모두 0.5 이상, Bartlett 구형성 검증값도  $p < 0.001$  이하로 나타나 표집 및 요인분석의 적합성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Results of Entrepreneurship

Observed Variable	Questionnaire Item	Innovativeness	Risk-Taking	Proactiveness
Innovativeness	① Inquisitive about New Products and Technologies	.843	.109	.065
	② Pursuing New Changes	.812	.226	.263
	③ Trying To Find New Ideas	.772	.264	.256
	④ Actively Embrace Original Ideas	.719	.133	.335
Risk-Taking	④ Challenge Despite Uncertainty	.200	.805	-.015
	② Pursuing New Things Despite High Risks	.303	.784	.136
	① No Fear of New Challenges and Results	.012	.719	.145
	③ Do Not Hesitate to Capture Potential Opportunities	.142	.698	.362
Proactiveness	④ Believe that You can Solve Problems with Your Own Strength	.079	.172	.769
	③ Strive To Plan And Achieve What You Want	.212	.228	.754
	② Solve Difficult Things without Giving Up	.280	.117	.748
	① Learn Anything With Just Your Heart	.459	-.006	.603
Eigen Value		2.976	2.513	2.505
% of Variance		24.799	20.945	45.745
Cumulative %		24.799	45.745	66.618
Cronbach's $\alpha$		.867	.794	.786
KMO / Bartlett Bartlett Sphericity Test		.873/0.000( $\chi^2=742.947$ , df=66)		

2)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

신뢰성 및 탐색적 요인분석에 이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최대 우도법에 의해 실시하였다. 구성개념 타당성은 <Table 7>과 같이 집중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본 구성개념의 집중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집중 타당성 검증 결과, 정서표현지능, 사고촉진지능, 개인 창의성, 기업가정신의 구성개념은 모두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고,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평균분산추출(AVE)과 개념 신뢰도를 살펴보면 정서표현지능 0.565와 0.834, 사고촉진지능 0.517과 0.807, 개인 창의성 0.626과 0.833, 기업가정신 0.638과 0.846으로 각각 나타나 모두 검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Table 7. Construct Validity Verification Standard**

Validity	Test Methods	
Convergent Validity	factor loading/Significance	.5~.95(.7 or More Recommend)/1.965 or More
	average variance extracted(AVE)	.5 or More
	Construct reliability(C.R.)	.7 or More
Discriminant Validity	AVE	.5 or More
	AVE and Comparison of Correlation Oefficient	Corresponding Variable AVE Square Root > Correlation Oefficient

판별 타당성 검증결과, <Table 9>와 같이 각 구성개념의 AVE 제곱근이 각 상관계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 또한 충족되었다. 개인 창의성과 기업가정신 간 상관계수가 0.680으로 가장 높고, 사고촉

**Table 8. Convergent Validity Test Results**

Variable	Measure Item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E.	C.R.	Factor Loading	Error Variance	AVE	Concept Reli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 Recognition 3	1			0.692	0.273	.565	.834	
	Emotion Expression Recognition 4	1.043	0.166	6.279	0.658	0.538			
	Emotion Intelligence Recognition 5	1.276	0.203	6.278	0.658	0.359			
	Intelligence	Emotion Recognition 10	0.588	0.14	4.213	0.415	0.418	.517	.807
		Facilitating Cognitive 2	1			0.557	0.547		
		Facilitating Cognitive 4	0.814	0.187	4.358	0.497	0.403		
		Facilitating Cognitive 6	1.198	0.227	5.275	0.683	0.496		
Personal Creativity	Facilitating Cognitive 7	1.198	0.222	5.387	0.725	0.318	.626	.833	
	Expertise	1			0.665	0.217			
	Creative Thinking	1.248	0.176	7.102	0.746	0.392			
Entrepreneurship	Motivation	1.177	0.192	6.125	0.615	0.214	.653	.846	
	Innovativeness	1			0.549	0.355			
	Proactiveness	1.322	0.205	6.447	0.819	0.288			
	Risk-Taking	1.326	0.224	5.929	0.695	0.131			

**Table 9. Discriminant Validity Test Results**

Research Variable	Emotional Expression Intelligence	Facilitating Cognitive Intelligence	Personal Creativity	Entrepreneurship
Emotional Expression Intelligence	<b>.751</b>			
Facilitating Cognitive Intelligence	.438 **	<b>.719</b>		
Personal Creativity	.441 **	.389 **	<b>.791</b>	
Entrepreneurship	.536 **	.451 **	.680 **	<b>.808</b>

Notes: 1. \*\*p<0.05, \*\*\*p<0.01,  
 2. Bold is the Square Root of AVE

진지능의 AVE 제공근이 0.719로 가장 낮으므로 이 두 수치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기업가정신의 AVE 제공근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어 판별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3)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및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정

본 연구변수에 대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면 위의 <Table 9>와 같다. 연구변수 간 상관관계는 연구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으며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법칙 타당성을 충족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가설의 검정을 위해서 <Table 10>과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chi^2$ 과 GFI, AGFI, RMSEA등의 절대 적합지수와 기초모형에 대한 제안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NFI, IFI, TLI, CFI등 증분 적합지수가 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chi^2$ 을 제외하고 권장되는 적합도 기준값에 대부분 근접하고 있어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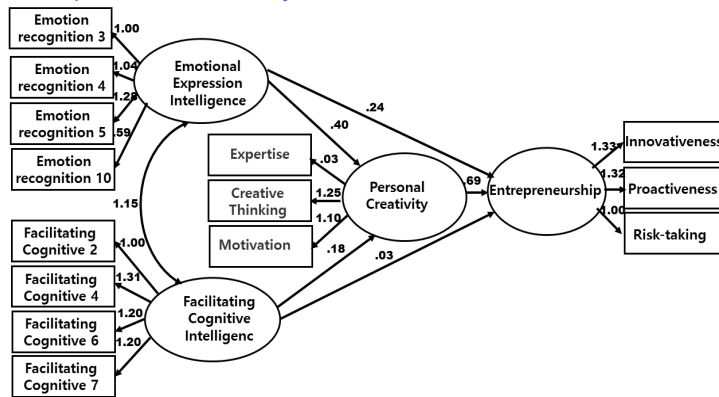
**Table 10. Research Model Fit Test Results**

Goodness-Of-Fit Indices		Reference Value	Measure
Absolute Fit Indices	CMIN(d.f., p)	p>.05	126.169(71, p=.000)
	RMR	.05 or less	.038
	GFI	.9 or more	.892
	AGFI	.9 or more	.840
	RMSEA	.1 or less usually .08 or less good .05 or less excellent	.074
Incremental Fit Index	NFI	.9 or more	.816
	IFI	.9 or more	.910
	TLI	.9 or more	.881
	CFI	.9 or more	.907

3. 가설검정

본 논문의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해서 <Fig 2>와 같이 AMO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하였다.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Results



1) 정서지능이 개인창의성에 미치는 영향(H1)

본 연구는 <Table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서지능이 개인 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하위가설을 통해 살펴보면 정서표현지능이 개인 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와 C.R.값은 각각 0.401과 3.021로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지지 되었다. 그러나 사고촉진지능이 개인 창의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와 C.R.값은 각각 0.183과 1.459로서 유의수준  $p < 0.05$ 에서 기각되었다.

Table 11.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sonal Creativity

Division	Path	Direction	Path Coefficient	S.E.	C.R.	p-Value	Results
H 1-1	Emotional Expression Intelligence→Personal Creativity	+	.401	.133	3.021	.003 **	Accept
H 1-2	Facilitating Cognitive Intelligence→Personal Creativity	+	.183	.125	1.459	.145	Reject

Note: \*\* $p < 0.05$ , \*\*\* $p < 0.01$

2) 정서 지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H2)

본 연구는 <Tabl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서 지능이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하위가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표현지능이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와 C.R.값은 각각 0.244와 2.274서 유의수준  $p < 0.05$ 에서 지지가 되었다. 반면 사고촉진지능이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와 C.R.값은 0.033과 0.475로서 기각되었다.

Table 12.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Entrepreneurship

Division	Path	Direction	Path Coefficient	S.E.	C.R.	p-Value	Results
H 2-1	Emotional Expression Intelligence→Entrepreneurship	+	.244	.107	2.274	.023 **	Accept
H 2-2	Facilitating Cognitive Intelligence→Entrepreneurship	+	.033	.087	.375	.707	Reject

Note: \* $p < 0.05$ , \*\*\* $p < 0.01$

### 3) 개인 창의성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H3)

본 연구는 <Table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 창의성이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하고 있다.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와 C.R.값은 각각 0.686과 4.302로서 유의 수준  $p < 0.01$ 에서 지지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개인 창의성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 창의성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때 창업 관련 정책에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창의성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13. Influence of Individual Creativity on Entrepreneurship**

Division	Path	Direction	Path Coefficient	S.E.	C.R.	p-Value	Results
H3	Personal Creativity → Entrepreneurship	+	.686	.159	4.302	***	Accept

Note: \*\* $p < 0.05$ , \*\*\* $p < 0.01$

### 4) 개인 창의성의 매개 효과(H4)

본 연구는 <Table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 창의성이 정서 지능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가설 4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완전매개와 부분매개 여부에 관해서는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으로 판단하는 방법과 대안모형을 설정하고 두 모형 간의 카이스퀘어 차이검증을 통하여 판단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부분매개 및 완전매개 여부를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가설 4-1 검증 결과, 정서표현지능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개인 창의성이 부분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트스트래핑에 의한 간접효과 유의성도 0.018로서  $p < 0.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정서표현지능과 기업가정신 간의 직접 효과는 0.313, 개인 창의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0.352, 총효과는 0.665로 나타났다. 가설 4-2를 검증한 결과, 개인 창의성은 사고촉진지능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창의성이 정서표현지능과 기업가정신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14. Results of Significance Test for Mediating Effect of Individual Creativity**

Division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Mediating effect	indirect effect significance	Results
H4-1	Emotional Expression Intelligence → Personal Creativity → Entrepreneurship	.313	.484*.727 = .352	.665	Partial Mediation	.018 **	Accept
H4-2	Facilitating Cognitive Intelligence → Personal Creativity → Entrepreneurship	.041	.218*.727 = .159	.200	No Mediation Effect	.282	Reject

Note: \*\* $p < 0.05$ , \*\*\* $p < 0.01$

## V. 결론

본 연구는 다른 나라들보다 특히 역동적이며 변동성과 위험도가 높은 한국기업의 생태계에서 다른 진로 문제를 고민하는 수많은 예비창업자에게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예비창업자의 정서 표현 지능과 사고촉진 지능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인 창의성의 매개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데 목적을 두고 주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지능이 개인 창의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Han Tae-Young and Yun-Suk Cha (2011)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선행연구 (Lee, Ju-Il and Kyung-Hwan Min, 1995)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개인 창의성은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고 있으며 선행연구 (Amabile, 1997; Halim and Mat, 2010; Whiting, 1988)와 일치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지능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개인 창의성이 부분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Feist (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창의성은 창업에 필요한 정서적 요인들을 기업가정신에 매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창의성은 사고촉진지능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다는 선행연구(whiting 1988; Lee, Florida and Acs, 2004)는 지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사고촉진지능은 정서지능의 하위요소 점을 고려할 때 기업가정신에는 다른 요인에 비해서 직접적인 매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인 요인이 정서 지능이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고촉진 지능은 대부분의 하위가설에서 기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업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교육은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정서표현지능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며 개인 창의성 또한 정서와 기업가정신을 매개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과 정서적인 소양을 지닌 사람들로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둘째, 개인의 정서표현지능과 기업가정신을 매개하는데 개인 창의성을 이용하였으나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들을 활용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번 연구에서 일부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어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적에 대한 조절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창업 후 3년 이상 생존하고 있는 경험이 축적된 기업가를 대상으로 정서 지능과 개인 창의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다면 가치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hn Tae-Uk and Tae-Won Kang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Capability on the Employment Volition: Focused on the Mediator Effect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search*, 20(5), 81-89.
- Amabile, T. M. (1983),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New York: Springer-Verlag.
- Amabile, T. M. (1989), *Growing up Creative*, Buffalo, New York: Creative Education Foundation.
- Amabile, T. M., K. G. Hill, B. A. Hennessey and E. M. Tighe (1994), "The Work Preference Inventory: Assessing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5), 950.
- Amabile, T. M. (1996), *Creativity in Context: Update to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Boulder, CO: Westview.
- Amabile, T. M. (1997), "Entrepreneurial Creativity Through Motivational Synerg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31(1), 18-26.
- Ayman-Nolley, S. (1992), "Vygotsky's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Imagination and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5(1), 77-85.
- Baek, Yu-Mi (2018),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on Employability of the College Studen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13-120

- Biniari, M. G. (2012), "The Emotional Embeddednes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Env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6(1), 141-170.  
<https://doi.org/10.1111/j.1540-6520.2010.00437>.
- Conti, R., H. Coon and T. M. Amabile (1996), "Evidence to Support the Componential Model of Creativity: Secondary Analyses of Three Studie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9(4), 385-389.  
[https://doi.org/10.1207/s15326934crj0904\\_9](https://doi.org/10.1207/s15326934crj0904_9)
- Dacey, J. S. (1989), *Fundamentals of Creative Thinking*,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De Bono, E. (1971), *The Use of Lateral Thinking*, London: Penguin.
- Dillon, J. T. (1982), "Creativity, Intelligence, and Problem Finding: Retrospect and Prospect Problem Finding", *Problem Solving, and Creativity*, 130-150.
- Ekman, P., W. V. Freisen and S. Ancoli (1980), "Facial Signs of Emotional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25.
- Feist, G. J. (1999), *14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on Artistic and Scientific Creativity*, Handbook of Creativity, 273.
- Feldhusen, J. F. (1995), Creativity: A Knowledge Base, Metacognitive Skills, and Personality Factors,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9(4), 255-268.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300-319.  
<https://doi.org/10.1037/1089-2680.2.3.300>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6, 218-226.
- Gil, Dae-Ho and Hwa-young Jeong (2019), "The Affects of Social Capital and Intellectual Capital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enior Gener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10(2), 79-97.  
<https://doi.org/10.32599/apjb.10.2.201906.79>
- Goleman, D. (200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 Books.
- Guilford, J. P. (1950),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 444-454.
- Guilford, J. P. (1967), "Creativity: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1), 3-14.
- Guilford, J. P. (1968), *Intelligence, Creativity, and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Edits Pub.
- Ha Dae-Hyun (1996), "An Introduction to Recent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of Human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 127-161.
- Halim, M. A. S. A. and A. C. Mat, (2010), "Crafters: A Significant Study on Entrepreneurial Creativity and Competitive Advantage", *Canadian Social Science*, 6(3), 59-66.
- Han, Tae-Young and Yun-Suk Cha (2011), "The Investigation of Individual & Team Adaptive Performance: A Test of a Homologous Model Affected by Performance Coaching & Feedback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19(1), 1-40.
- Han, Yoo-Jin (2016), "Research Trend of Entrepreneurship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121-131. <https://doi.org/10.24878/tkes.2018.13.1.068>
- Isen, A. M. and K. A. Daubman (1984), "The Influence of Affect on 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6), 1206.
- Isen, A. M., K. A. Daubman and G. P. Nowicki (1987), "Positive Affect Facilitates Creative Problem Solv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6), 1122.
- Isen, A. M., M. M. Johnson., E. Mertz and G. F. Robinson (1985),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on the Unusualness of Word Associ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6), 1413.
- Jancenelle, V. E., S. Storrud-Barnes and R. R. G. Javalgi (2017),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Market Performance: A Content Analysis of Earning Conference Calls", *Management Research Review*, 40(3), 352-367. <https://doi.org/10.1108/mrr-01-2016-0019>
- Jang, Jun-Ho and Chun-Hua Jin (2019),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the College

- Students on Employment Anxiety: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Str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10(2), 99-116.  
<https://doi.org/10.32599/apjb.10.2.201906.99>
- Jang, Kwang-Hee (2019), "An Empirical Study for Developing a Participant-oriented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Progra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10(3), 113-124.  
<https://doi.org/10.32599/apjb.10.3.201909.113>
- Kim, Hye-Sook and In-Soo Choe (2002), "A Structural Model for Creativit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229-245.
- kim, In-Sue, Kyeong-Sik Yoo and Yoon-Dong Kim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Activities of Venture Enterprises on the Increase Firms' Revenu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2), 329-341.
- Kim, Jong-Kwan (2017),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Innovative Behavior in Manufacture of Automobile industr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2), 67-80.
- Kim, Ki-Sup and Kyung-Hun Cho (2017), "Verification of Regulating Effects of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Thinking Promotion Competence amongst Athletic Student",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6(1), 807-813. <https://doi.org/10.35159/kjss.2017.02.26.1.807>
- Kim, Sang-Pyo, Chung-Gyu Byun and Hwan-Ho Ha (2014),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4(3), 67-78.
- Kuratko, D. F. and D. B. Audretsch (2013), "Clarifying the Domain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9(3), 323-335.  
<https://doi.org/10.1007/s11365-013-0257-4>
- Lee, Hyun-Kyoung and Il-Han Lee (2016), "The Study of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reativity and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111-120. <https://doi.org/10.16972/apjbve.11.3.201606.111>
- Lee, Ju-il and Kyung-Hwan Min (1995), "The Effects of Emotional, Cognitive, and Personality Variables on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4, 47-66.
- Lee, Jung-Mo (2002), *Cognitive Psychology*, Seoul: Hakjisa.
- Lee, S. Y., R. Florida and Z. Acs (2004),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A Regional Analysis of New Firm Formation", *Regional Studies*, 38(8), 879-891.
- Lee, Sang-Jik and Jae-Choon Park (2015),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Emotional Intelligence,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20(4), 1-22.
- Lumpkin, G. T. and G. G. Dess (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ayer, J. D. and D. Bremer (1985), "Assessing Mood with Affect-sensitive Task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95-99.
- Mayer, J. D. and G. Geher (1996),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 *Intelligence*, 22(2), 89-113.
- Mayer, J. D. and P. Salovey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Mayer, J. D. and P. Salovey (1993), "The Intellig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telligence*, 17, 433-442.
- Mayer, J. D. and P. Salovey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New York: Basic Books.
- Miller, D.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Morris, M. H. and P. S. Lewis (1995),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Implications for

-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9(7), 31-48.
- Palmer, M. (1971), “The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esting to Entrepreneurial Potential”,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13(3), 32-38.
- Park, Jun-Gi and Jae-Sub Shim (2019), “An Effect of Work and Life Balance of Startup: Focus on Organizational Pride and Job Satisfac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10(3), 95-112.  
<https://doi.org/10.32599/apjb.10.3.201909.95>
- Pickle, H. B. and R. L. Abrahamson (1990), *Small Business Management 5th Edition*, New York : John Wiley & Sons.
- Pulakos, E. D., S. Arad., M. A. Donovan and K. E. Plamondon (2000), “Adaptability in the Workplace: Development of a Taxonomy of Adaptive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4), 612.
- Runco, M. A., M. A. Pritzker., S. R. Pritzker and S. Pritzker (1999), *Encyclopedia of Creativity*, 2(Eds), Elsevier.
- Ruscio, J., D. M. Whitney and T. M. Amabile (1998), “Looking inside the Fishbowl of Creativity: Verb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Creative Performance”, *Creativity Research Journal*, 11(3), 243-263.
- Schumpeter, J.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ne, S. and S. Venkataraman (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 217-226.
- Sifneos, P. E. (1972), *Short-term Psychotherapy and Emotional Crisis*, Harvard University Press.
- Statistics Korea (2020), *December 2019 and Annual Employment Trends*.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380153&pageNo=1&rowNum=10&navCount=10](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380153&pageNo=1&rowNum=10&navCount=10).
- Staw, B. M. and S. Barsade (1993), “Affect and Managerial Performance: A Test of Sadder-but-wider vs. Happier-and-smarter Hypothese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8, 304-331.
- Sternberg, R. J and T. I. Lubart (1991), “An Investment Theory of Creativity and its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34(1), 1-31.
- Stevenson, H. H. and J. C. Jarllo (1990), “A Paradigm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Management”,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11(5), 17-27.
- Taylor, G. J., D. Ryan and R. M. Bagby (1985), “Toward the Development of a New Self-report Alexithymia Scale”, *Psychotherapy and Psychosomatics*, 44, 191-199.
- Urban, B. (2013), “Social Entrepreneurship in an Emerging Economy: A Focus on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Social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Managing Global Transitions: International Research Journal*, 11(1), 3-25.
- Vygotsky, L. S. (1980),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 Whiting, B. G. (1988),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How do They Relate?”,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2, 178-183. <https://doi.org/10.1002/j.2162-6057.1988.tb00495>